Q 전후 한반도는 왜 38도선으로 분할됐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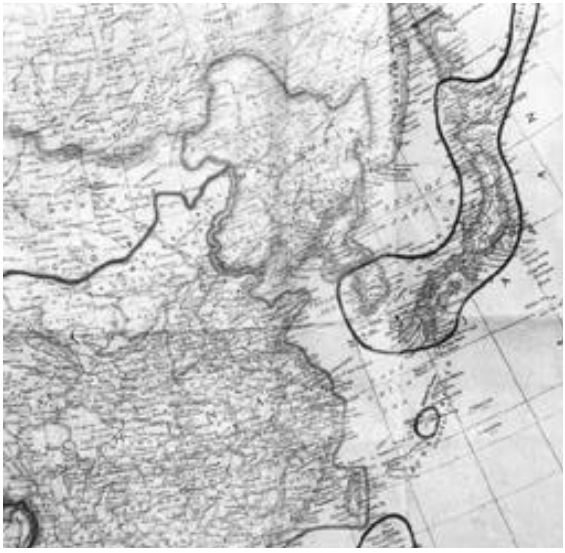
A 1945년 5월 초 독일이 항복하자 연합국은 최후까지 저항하고 있던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연합국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미국은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8월 6일과 9일 각각 일본 본토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같은 시기 소련은 6개월 전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결의에 근거해 8월 8일 선전포고와 동시에 대일전을 개시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아 157만 명의 대군을 소 · 만국경을 넘어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진격시켰다. 소련군의 북한 진입은 8월 15일과 17일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졌다. 소련 공군기는 함경도 웅진, 나진, 청진 등지에 폭격을 개시했고, 치스챠코프 대장이 이끄는 소련 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이 동해 해상을 통해 청진, 흥남, 함흥, 원산 등지를 거쳐 24일에는 평양으로 진입했다.

파죽지세의 기세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진입하고 있는 소련군의 군사적 남하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최초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련의 참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함에 따라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군사 점령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주체와 극동에서의 군사작전의 한계선을 신속히 결정했다. 구체적 논의는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로 구성된 3부 조정위원회에서 착수됐다. 실무를 담당한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1942년도 판 지도를 보고 한반도에서 미 · 소 작전 담당 구역의 분할선을 북위 38도선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련군이 이미 한반도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음에 반해, 미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해야 600마일 떨어진 일본의 오키나와와 1,500마일에서 2,000마일 가량 떨어진 필리핀에 있던 상황을 고려했다. 만일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선마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 실무자들은 당시 여건에서 아시아주둔 미군을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주요 도시를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일본군의 항복을 처리하기 위해 연합국이 설정한 일본의 항복 접수지역도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하게 된 북위 38도선의 경계선 푯말

멀리 진주시켜 봤자 38도선까지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부의 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 중 대체로 해군부는 39도선 분할안을 제시한 반면, 국무부와 육군부는 38도선 분할을 선호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으로 분할하자는 건의안을 아무런 수정 없이 결재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의 재가가 난 이 내용을 8월 15일 필리핀주둔 태평양지역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물론, 모스크바 주재 미군사절단에 송부하여 스탈린에게도 그 사본을 전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목적으로 한 이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답해온 소련정부는 8월 16일자 회신에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군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 일반명령 제1호 ’가 신속하게 작성됐다. 그리고 다음달 9월 초 일본 도쿄만의 미주리호 함상에서 거행된 항복문서 조인식 후

연합군사령관의 명의로 발표됐다. 이 명령에 언급된 38도선은 일본의 항복접수와 무장을 해제코자 책임구역을 할당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였을 뿐이다. 문제의 38도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주,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반도 지역, 사할린 및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 · 해 · 공군과 보조부대는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에게 항복하라.
2) 일본국과 일본국 본토에 인접한 모든 작은 섬,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 류쿠열도와 필리핀제도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육 · 해 · 공군 및 보조부대는 미국 태평양육군총사령관에게 항복하라.

일반명령 제1호는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을 경계선으로 각기 한반도의 남북으로 진주하게 된 근거가 됐다. 미 · 소의 한반도 분할점령도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38도선은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분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념적으로도 한민족을 갈라놓았다. 군사적 편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설정된 분할선은 그 후 정치적 경계선으로 굳어져 결국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첫 걸음이 됐다. 그리고 그 선의 양편에는 각각 한반도의 정통유일 합법정부를 표방하는 서로 다른 정치권력이 들어서게 됐다.

생각해 봅시다!!

1.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과정은?
2. 38도선의 분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